

의사소통장애 아동을 위한 표준화된 은유능력발달 검사도구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

- 연령별 기준과 신뢰도를 중심으로 -

이 은 경**

동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이 중 열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영재교육지원센터) 전문연구위원

박 상 희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 요 약 》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중 하나인 은유능력의 발달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은유능력발달 검사도구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령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른 연령별 기준을 분석하고, 검사방법 및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또래 연령집단 아동과의 발달 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검사문항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개발하였고, 2차례의 예비검사와 문항분석을 거쳐서 최종검사문항을 선정하였다. 연구는 만 7세부터 12세 11개월까지의 일반 아동 281명(남자 164명, 여자 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검사 실시 후 연령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연령별 정상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검사의 신뢰도는 검사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유능력은 생활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각 연령집단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726($p < .001$)으로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검사가 실제 연령별로 획득한 원점수에 차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사결과를 통한 발달 정도를 산출할 수 있었다. 둘째, 검사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Cronbach α 는 .903, 상관계수는 .930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며, 신뢰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은유능력발달 검사는 일반아동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지체나 장애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의 은유능력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은유, 은유능력, 은유능력발달, 은유검사, 학령기, 표준화검사, 신뢰도

* 이 논문은 2009년 한국언어치료학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SHA-2009-001).

** 제1저자, 교신저자(eklee129@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어느 영역에서든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발달기에 있는 언어장애, 의사소통장애 아동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현재까지 언어-의사소통능력 평가를 위한 표준화 검사도구로는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 조음음운 검사,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 등이 있으며 이들 검사도구는 일반 아동들과 언어발달지체 아동들에게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간접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은유능력의 발달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 검사도구의 개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언어발달지체 및 장애 아동들은 의미가 표현에 드러나 있는 직접적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은유, 비유, 환유, 의인화, 관용어 등과 같은 상위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에도 많은 곤란을 보인다(이은경 외, 2008; 이은경, 석동일, 2009). 그러나 이러한 은유나 비유적 표현은 언어발달 초기부터 꾸준히 발달한다고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고미영, 1988; 김명미, 2002; 김운현, 2000; 임지룡, 2002, 2006; Apresjan & Apresjan, 2000; Barcelona, 2000; Bialecka-Pikul, 2003; Dirven, 2002; Gibbs & Steen, 1999, Halverson, 1999).

일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살펴보면,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린다 등의 비유적 의미에 의한 의사소통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큼이나 빈번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의 직접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숨겨진 간접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아동들이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TV광고, 만화, 동화책 등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간접적 표현은 빈번히 제시되어 있다(정혜승, 2002). 은유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으로까지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아들은 신체적, 감각적 경험에 의해 다양한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하며 이로 인하여 언어의 의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Kövecses, 1995, 1999, 2000, 2002). 그러나 언어발달지체 아동은 수용언어, 표현언어능력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은유능력의 발달이 지체되어 있어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낸다. 또한 이들은 은유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중재를 필요로 하지만 현재 이를 평가하고 중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 7세부터 12세 11개월까지 학령기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중 하나인 은유능력발달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은유능력발달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를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연령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여 동일 연령집단의 정상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검사 및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문항의 신뢰성 및 검사의 신뢰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은유능력발달 검사 개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은유능력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검사는 은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판별과 평가 및 치료목표를 설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또한 표준화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동일 연령집단 아동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1. 검사문항 초안 개발

은유능력발달 검사는 만 7세부터 만 12세 11개월까지 학령기 아동들의 은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이다. 은유능력발달을 검사하기 위하여 먼저 검사문항을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 선정기준은 첫째, 은유 분류기준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념적 은유, 언어적 은유, 문맥파악이 필요한 은유, 의인화, 관용어로 분류하였다. 둘째, 은유성의 정도 및 난이도에 따라 은유성이 낮은 은유, 보통인 은유 및 초급 은유, 중급 은유, 고급 은유로 분류하여 검사문항 선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검사문항에 대한 선정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은유 분류기준을 결정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검사문항을 선정하였다(고미영, 1988; 김명미, 2002; 김윤현, 2000; 박보경, 1997; 박영순, 2000; 송경숙, 2000; 신동일, 2002; 이기동, 1997; 이인섭, 1991; 임지룡, 2002, 2006; 정혜승, 2002; Apresjan & Apresjan, 2000; Barcelona, 2000; Billow, 1981; Broderick, 1991; Bialecka-Pikul, 2003; Billow, 1981; Broderick, 1991; Cometa, 1978; Dirven, 2002; Evans, 1988; Fass, 1997; Galda, 1981; Gardner, 1978; Gibbs, 1994; Gibbs & Steen, 1999, Halverson, 1999; Johnson & Pascual-Leone, 1989). 이렇게 수집한 문항들은 은유 분류기준과 은유성의 정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재분류작업

을 거쳐 총 50개 문항으로 결정되었다. 검사문항 선정에 위한 도구 및 자료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문장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문항을 선정하였다.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은유능력발달 검사문항 개발을 위한 문항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접적 은유
	구조적 은유
개념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그릇 은유
	음식물 은유
	물체 은유
	무기 은유
	기계 은유
	불 은유
	날씨 은유
	방향적 은유
	수직방향 은유
	수평방향 은유
언어적 은유	치환은유
	단일은유
	복합은유
	액자은유
	공감각적 은유
	병치은유
문맥 파악이 필요한 은유	
의인화	
관용어	

이렇게 제작한 은유능력발달 검사문항이 규정된 내용을 대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언어치료학 박사를 포함한 언어장애전문가 27명에게 각 검사문항이 검사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평가하도록 하여 검사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정을 받았다.

2. 반응 양식 결정

은유능력발달 검사는 기존의 검사도구들과 반응양식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나의 그림판에 세 개의 그림을 제시하고, 검사자가 목표문장을 말하면 피검사자가 목표문장을 듣고 세 개의 그림 중에서 하나를 지적하도록 하는 반응 양식을 사용하였다(Ruscello, 2001; Zimmerman, Steiner, & Pond, 1992; 배소영 외, 2004).

3. 검사그림 제작

은유능력발달 검사는 그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다. 따라서 그림의 타당성이 매우 중요하며 검사문장을 선정할 때부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고려하였다. 또한 그림의 모호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언어장애전문가에게 그림에 대한 타당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타당도는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으며, 평균 3점 이하로 나타난 그림들은 검사문항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검사문장을 제시하고, 그림판에 있는 그림들이 검사 상황에 적절한지 또는 그림을 보고 검사문장을 변별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그림을 검사문항에서 제외시키거나 다시 제작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재평가하였다.

4. 예비검사

은유능력발달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2번의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의 대상은 만 7세부터 12세 11개월까지 학령기 아동이었다. 연령집단을 1년 단위(7세 연령집단의 경우 7세 0개월에서 7세 11개월)로 나누고, 연령집단별 2명씩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전체 검사문항에 대한 수정작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들은 1차와 2차 모두 교사 또는 부모로부터 신체, 정서, 사회성, 인지, 언어발달에 이상이 없고, 감각영역과 학습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들이었으며,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김영태 외 등, 2009)에서 정상범위에 있다고 판별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검사 결과, 변별도가 낮고 중복되는 문항, 피검사자들이 문항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애매한 반응을 유도하는 문항은 제외하였다. 또한 문항의 난이도가 낮아서 아동들의 정반응율이 높은 경우는 앞 문항으로 이동하여 문항재조정을 실시하였다. 2차 예비검사는 1차 예비검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검사는 연령집단별로 2명씩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후 최종 검사문항을 선정하고, 문항재배열을 실시하였다. 이때 검사는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Ⅲ. 검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와 대구경북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학원에 재학 중인 만 7세부터 12세 11개월의 아동 중에서 부모나 교사의 보고를 근거로 신체, 정서, 사회성, 인지, 언어발달 및 감각기능에 문제가 없으며 언어발달의 문제로 치료받은 경험이 없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검사의 총 연구 대상은 298명이었고, 이 중에서 검사미비 등으로 신뢰롭지 못한 자료를 제외한 전체 참여 연구 대상은 281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집단별, 성별, 지역별로 분포를 분석하였다. 연령집단 분류 방법은 각 해당 연령의 0개월에서 11개월을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7세 0개월에서 7세 11개월을 7세 집단, 8세 0개월에서 8세 11개월을 8세 집단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집단별 분포를 살펴보면 7세는 49명(17.4%), 8세는 43명(15.3%), 9세는 43명(15.3%), 10세는 50명(17.8%), 11세는 51명(18.1%), 12세는 45명(16.1%)이며 최종 자료 분석에 포함된 연령집단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의 연령집단별 분포

연령집단	표본수(명)	평균월령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7세	49	91.12	3.33	84	95
8세	43	101.19	2.95	96	107
9세	43	113.07	3.68	108	119
10세	50	126.06	3.94	120	131
11세	51	137.86	3.62	132	143
12세	45	149.82	3.65	144	155

연구 대상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164명(58.4%), 여자 117명(41.6%)이었으며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성별 분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대상의 성별 분포

연령집단	성별		전체
	남자	여자	
7세	32	17	49
8세	29	14	43
9세	24	19	43
10세	29	21	50
11세	26	25	51
12세	24	21	45
전체	164	117	281

연구 대상은 주로 대구경북과 서울경기 지역에서 표집하였다. 연구 대상의 지역별 표집비율은 대구경북 211명(75.1%), 서울경기 70명(24.9%)이었으며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지역별 분포는 <표 4>와 같다.

<표 4> 연구 대상의 지역별 분포

연령집단	지역		합계
	대구경북	서울경기	
7세	28	21	49
8세	26	17	43
9세	30	13	43
10세	42	8	50
11세	43	8	51
12세	42	3	45
전체	211	70	281

2. 연구 절차 및 방법

1) 은유능력발달 검사도구 내용 및 최종검사문항 선정

은유능력발달 검사에 사용된 검사문항들은 국내외의 많은 문헌들을 기초로 하여 개발하였으며, 이 검사의 결과로 은유능력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지체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며 또래아동과 비교하여 백분위점수를 산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유능력발달 검사 문항들은 관용어 사전을 참고로 하여 관용어로 사용되는 문항들은 제외하였으나 의인화와 환유는 검사문항에 포함시켰다.

은유능력발달 검사는 만 7세부터 12세 11개월의 학령기 아동에게 실시하는 검사이다. 검사문항 선정을 위한 자료로는 학생이면 누구나 사용하는 가장 객관성 있는 자료인 1학년에서 6학년 국어교과서(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자료로 사용하였고, 검사문항은 은유능력 및 은유발달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교과서는 학령기 아동들이 은유적 의미를 어떻게 배우고, 사용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첫째, 학령기 아동들의 언어 및 인지학습발달 순서에 맞추어 개념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는 점이다. 둘째, 학령기 아동들이 이해하고 있는 은유표현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며 연령에 적절한 관습적인 은유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교과서에 사용된 은유표현은 아동의 언어 및 인지학습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능력을 측정하면 은유능력에 대한 발달적 경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수차례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검사문항을 제작하였다. 또한 2차에 걸친 예비검사로 문항을 재구성하였고, 최종검사문항 선정 후 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모형에서 추정된 문항난이도와 피검사자의 반응율을 근거로 재배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은유능력발달 검사는 최종적으로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문항을 분석하면 개념적 은유는 68%로 이 중에서 직접적 은유 11%, 구조적 은유 6%, 존재론적 은유 42%, 방향적 은유 9%였고, 언어적 은유는 15%로 이 중에서 치환은유 12%, 병치은유 3%였으며, 문맥파악이 필요한 은유 11%, 의인화 6%이었다.

언어발달을 측정하는 검사는 측정학적 순서를 고려하여 문항을 배열할 필요가 있다(김영태 등,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도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하여 최종검사문항 선정 이후 검사문항의 난이도를 산출하여 문항을 재배열하였다.

은유능력발달 검사는 35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당 3개의 그림이 제시되어있는 그림판을 피검사자에게 제시한 다음 검사자의 지시문을 듣고 피검사자가 하나의 그림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점수는 문항 1에서 35까지 검사를 모두 실시하여 획득한 전체 점수로 산출하였고, 산출된 원점수로 은유능력발달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2) 실시절차 및 방법

(1) 검사방법

검사는 전체 35문항으로 한 문항은 한 개의 그림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개의 그림판에는 각각 세 개의 그림이 제시되어 있으며, 검사자는 피검사자에게 검사문항을

들려주고, 피검사자가 제시된 세 개의 그림 중에서 하나를 지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언어치료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검사내용, 검사방법, 채점방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검사방법을 숙지하게 한 후 실시하였고, 검사 실시절차 및 방법은 예비검사와 동일하였다. 검사자는 검사를 진행할 때 임의로 검사방법을 바꾸거나 단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였고, 모든 검사문항은 검사자가 제시된 문장을 피검사자에게 정확하게 한 번만 말해주며, 만약 피검사자가 한 번 더 말해주기를 요구한다면 한 번 더 말해주도록 하였다.

(2) 채점방법

각 문항은 1점씩 배점하였다. 전체 검사문항 중 피검사자가 정반응을 보인 문항은 ‘+’로 기록하였고, 오반응을 보인 문항은 ‘-’ 또는 피검사자가 답한 문항번호를 기록하였다. 점수는 기록지에 ‘+’로 표시된 문항의 수를 더하여 원점수를 산출하였다.

$\text{원점수} = \text{전체 문항수} - \text{틀린 문항수}$
--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검사자들에게 강의형식과 개별적으로 검사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검사방법을 숙지시킨 다음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검사 장소는 학교와 학원의 조용한 교실을 이용하였다. 검사는 예비검사와 동일하게 검사자와 피검사자가 일대일 상황에서 실시하였으며 검사 전에 검사방법에 대하여 피검사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 검사결과는 반응지에 즉시 기록하였으며 정반응한 문항은 ‘+’로 기록하였고, 오반응한 문항은 ‘-’ 또는 피검사자가 답한 문항번호를 기록하였다. 또한 피검사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NR (No Response)이라고 기록하였다. 검사시간은 1명당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자료 및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검사도구의 각 문항에 대하여 피검사자가 정반응하면 1점, 오반응하면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검사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17.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연령집단별, 성별 획득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획득점수의 변화양상을 비교하였고, 검사문항별 획득점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은유능력발달 검사도구의 신뢰도 추정을 위하여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내적일치도는 Cronbach α 로 분석하였으며, 생활연령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개개의 문항을 하나의 검사로 간주하여 문항들 간의 유사성 혹은 측정의 일관성을 검정하는 방법이며(성태제, 2005),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험자에게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여 두 검사점수 간의 상관성으로 검사도구의 안정성을 살펴보는 방법이다(성태제, 2007).

IV. 결과 및 논의

이 연구는 만 7세부터 12세 11개월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에 필요한 은유능력발달 정도를 평가·진단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연령집단별 정상성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고,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피검사자의 은유능력과 발달정도를 측정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은유능력발달에 대한 정상성 기준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검사에서는 정상성과 이탈 정도를 해석할 수 있는 연령을 1년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은유능력에 차이가 있는 경우 기준 제작시 반영하여야 하므로 기준 제작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집단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1. 연령별 은유능력발달 기준

연구 대상의 연령집단별 및 성별 은유능력발달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알아보았다. 이때 연령집단의 구분 기준은 해당 연령의 0개월에서 11개월이 포함되도록 하여 분류하였다.

1) 연령집단별 및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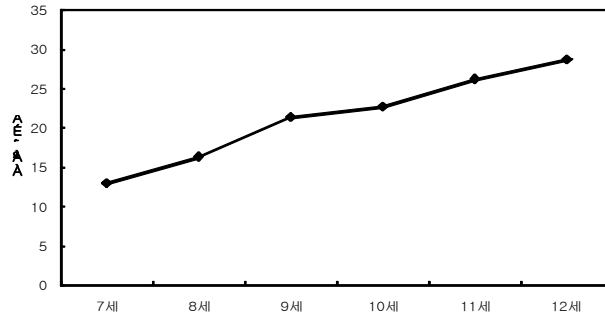
연구 대상 아동의 연령집단별 및 성별 은유능력발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연령집단별 및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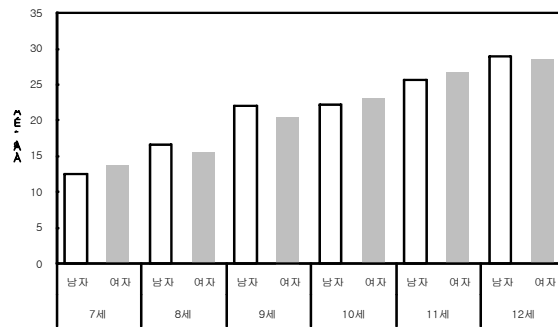
연령집단	성별	M	SD
7세	전체	12.88	3.88
	남자	12.44	3.82
	여자	13.71	4.36
8세	전체	16.30	5.75
	남자	16.62	5.59
	여자	15.64	6.23
9세	전체	21.34	5.32
	남자	22.00	5.35
	여자	20.52	5.30
10세	전체	22.64	5.78
	남자	22.24	6.25
	여자	23.19	5.15
11세	전체	26.19	5.75
	남자	25.69	6.26
	여자	26.72	5.25
12세	전체	28.69	3.66
	남자	28.87	3.41
	여자	28.47	4.00

연령집단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7세의 경우 평균점수는 12.88(SD: 3.88)이었으며 남자 12.44(3.82), 여자 13.71(4.36)이었다. 8세는 16.30(5.75)으로 남자 16.62(5.59), 여자 15.64(6.23)이었다. 9세는 21.34(5.32)로 남자 22.00(5.35), 여자 20.52(5.30), 10세는 22.64(5.78)로 남자 22.24(6.25), 여자 23.19(5.15), 11세는 26.19(5.75)로 남자 25.69(6.26), 여자 26.72(5.25), 12세는 28.69(3.66)로 남자 28.87(3.41), 여자 28.47(4.00)이었다.

위 결과에 의하면 연령집단별 은유능력은 피검사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동일한 연령집단 내에서 성별에 따른 은유능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집단별 및 성별 은유능력은 다음의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연령집단별 은유능력발달



<그림 2> 연령집단별 및 성별 은유능력발달

2) 은유능력발달의 연령별 정상성 기준과 해석

은유능력발달의 연령별 정상성 기준은 아동의 생활연령에 해당하는 연령집단별 획득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결과를 기준으로 판별하였다. 또한 은유능력발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획득점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이 결과를 기준으로 연령집단별 정상성 기준을 표준편차 ± 1 , ± 1.5 , ± 2 로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표준편차 ± 1 은 '정상 발달', -1.5 는 '약간 지체 또는 유의 요망', -2 는 '발달지체'로 나누어 판정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의 정상성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며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와 유사한 기준을 사용하여 정상성을 분류하고 있다(김영태 외, 2005, 2008, 2009; 배소영 2004).

<표 6> 연령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	성별	M	SD	-2SD	-1.5SD	-1SD	+1SD	+1.5SD	+2SD
	전체	12.88	3.88	5.12	7.06	9.00	16.76	18.70	20.64
7세	남자	12.44	3.82	4.80	6.71	8.62	16.26	18.17	20.08
	여자	13.71	4.36	4.99	7.17	9.35	18.07	20.25	22.43
	전체	16.30	5.75	4.80	7.68	10.55	22.05	24.925	27.80
8세	남자	16.62	5.59	5.44	8.24	11.03	22.21	25.01	27.80
	여자	15.64	6.23	3.18	6.29	9.41	21.87	24.99	28.10
	전체	21.34	5.32	10.70	13.36	16.02	26.66	29.32	31.98
9세	남자	22.00	5.35	11.30	13.98	16.65	27.35	30.03	32.70
	여자	20.52	5.30	9.92	12.57	15.22	25.82	28.47	31.12
	전체	22.64	5.78	11.08	13.97	16.86	28.42	31.31	34.20
10세	남자	22.24	6.25	9.74	12.87	15.99	28.49	31.62	34.74
	여자	23.19	5.15	12.89	15.47	18.04	28.34	30.92	33.49
	전체	26.19	5.75	14.69	17.57	20.44	31.94	34.82	37.69
11세	남자	25.69	6.26	13.17	16.30	19.43	31.95	35.08	38.21
	여자	26.72	5.25	16.22	18.85	21.47	31.97	34.59	37.22
	전체	28.69	3.66	21.37	23.20	25.03	32.35	34.18	36.01
12세	남자	28.87	3.41	22.05	23.76	25.46	32.28	33.99	35.69
	여자	28.47	4.00	20.47	22.47	24.47	32.47	34.47	36.47

3) 생활연령과의 상관관계

은유능력은 생활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표준화검사에서는 이들 간의 상관성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검사에서는 규준집단의 생활연령과 은유능력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연령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은유능력발달 검사의 획득점수에 기초하여 산출한 은유능력과 생활연령 간의 상관계수는 .726($p < .001$)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은유능력발달 검사의 신뢰도

은유능력발달 검사의 신뢰도 추정을 위하여 검사문항 및 검사방법을 중심으로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1) 검사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은유발달검사 문항 간 내적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로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연령집단별 검사문항에 대한 Cronbach α 는 .90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집단별 검사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표 7>과 같다.

<표 7> 연령집단별 검사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연령집단	Cronbach α
7세	.633
8세	.831
9세	.787
10세	.841
11세	.863
12세	.697
전체	.903

2) 재검사 신뢰도 분석

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위한 연구 대상은 7세 2명, 8세 2명, 9세 2명, 10세 3명이었다. 연구 대상은 1차 검사 때와 동일한 아동으로 하였으며, 이들에게 15일 이내에 1차 검사와 동일한 도구와 방법으로 2차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였다. 1차와 2차 검사의 검사자는 서로 다르게 하여 검사자간 순서효과를 통제하였다. 또한 1차, 2차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두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으며, 상관계수는 .930($p < .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위한 구체적 연구 대상은 <표 8>과 같다.

<표 8> 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위한 연구 대상

연령집단	7세	8세	9세	10세
사례수	2	2	2	3

3) 검사문항 난이도

은유능력발달 검사의 검사문항이 난이도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하여 정반응율에 기초하여 연령집단별 문항의 난이도를 산출하였다. 전체 정반응율에 기초한 각 검사문항의 연령집단별 난이도는 <표 9>와 같다.

<표 9> 연령집단별 검사문항의 난이도(%)

검사문항 번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N	%	N	%	N	%	N	%	N	%	N	%
1	49	95.9	43	100.0	43	97.7	50	100.0	51	100.0	45	95.6
2	49	89.8	43	95.3	43	93.0	50	100.0	51	100.0	45	97.8
3	49	87.8	43	88.4	43	93.0	50	96.0	51	98.0	45	97.8
4	49	77.6	43	88.4	43	79.1	50	88.0	51	90.2	45	91.1
5	49	59.2	43	67.4	43	88.4	50	98.0	51	98.0	45	100.0
6	49	55.1	43	81.4	43	83.7	50	88.0	51	92.2	45	95.6
7	49	57.1	43	69.8	43	90.7	50	92.0	51	96.1	45	93.3
8	49	69.4	43	76.7	43	81.4	50	80.0	51	90.2	45	86.7
9	49	55.1	43	53.5	43	83.7	50	84.0	51	90.2	45	97.8
10	49	49.0	43	58.1	43	88.4	50	88.0	51	92.2	45	95.6
11	49	53.1	43	65.1	43	74.4	50	80.0	51	94.1	45	91.1
12	49	57.1	43	69.8	43	74.4	50	80.0	51	80.4	45	88.9
13	49	46.9	43	62.8	43	74.4	50	86.0	51	86.3	45	93.3
14	49	22.4	43	48.8	43	76.7	50	90.0	51	90.2	45	97.8
15	49	40.8	43	62.8	43	53.5	50	72.0	51	74.5	45	77.8
16	49	36.7	43	53.5	43	74.4	50	62.0	51	80.4	45	82.2
17	49	24.5	43	41.9	43	72.1	50	64.0	51	82.4	45	100.0
18	49	42.9	43	46.5	43	48.8	50	46.0	51	72.5	45	88.9
19	49	24.5	43	30.2	43	60.5	50	68.0	51	80.4	45	91.1
20	49	36.7	43	39.5	43	46.5	50	56.0	51	76.5	45	86.7
21	49	22.4	43	41.9	43	46.5	50	62.0	51	80.4	45	82.2
22	49	26.5	43	34.9	43	55.8	50	64.0	51	72.5	45	77.8
23	49	4.1	43	32.6	43	53.5	50	44.0	51	80.4	45	82.2
24	49	16.3	43	34.9	43	55.8	50	56.0	51	56.9	45	71.1
25	49	34.7	43	32.6	43	46.5	50	46.0	51	54.9	45	71.1
26	49	10.2	43	18.6	43	53.5	50	62.0	51	54.9	45	84.4
27	49	26.5	43	20.9	43	44.2	50	42.0	51	62.7	45	73.3
28	49	2.0	43	14.0	43	37.2	50	48.0	51	64.7	45	82.2
29	49	12.2	43	20.9	43	44.2	50	38.0	51	58.8	45	68.9
30	49	10.2	43	9.3	43	39.5	50	44.0	51	66.7	45	66.7
31	49	6.1	43	14.0	43	34.9	50	40.0	51	49.0	45	55.6
32	49	2.0	43	16.3	43	20.9	50	30.0	51	41.2	45	77.8
33	49	12.2	43	14.0	43	27.9	50	24.0	51	39.2	45	40.0
34	49	12.2	43	9.3	43	25.6	50	26.0	51	33.3	45	44.4
35	49	8.2	43	16.3	43	14.0	50	20.0	51	39.2	45	42.2

본 검사의 검사문항은 문항번호가 증가할수록 난이도가 점차 어려워지도록 문항을 배열하였다. 따라서 <표 9>에서와 같이 문항번호가 증가할수록 정반응율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검사문항의 순서를 결정할 때 연령집단별로 검사문항의 점수를 각각 계산하여 순서화시킨 것이 아니고, 문항별 전체 연령에 대한 획득점수를 기준으로 검사문항 순서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연령집단에서 정반응율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도록 조절하지는 못하였다.

4) 검사문항 및 점수의 성차분석

은유능력발달 검사의 각 검사문항이 특정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문항별 획득점수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각 문항별로 x^2 검정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획득점수에 대한 남녀 간 각 문항별 성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검사문항별 성차분석

검사문항 번호	x^2	p
1	.006	1.000
2	.069	1.000
3	1.520	.323
4	4.830	.037
5	7.655	.006
6	.016	1.000
7	1.340	.262
8	1.897	.219
9	.879	.386
10	8.690	.003
11	1.636	.253
12	.269	.679
13	3.998	.051
14	1.594	.231
15	.148	.709
16	.396	.899
17	.241	.705
18	.389	.543
19	1.815	.218
20	.526	.541

문항번호	χ^2	p
21	.292	.627
22	2.944	.090
23	4.878	.030
24	.330	.628
25	.003	1.000
26	.023	.904
27	.266	.628
28	.031	.903
29	.369	.622
30	2.476	.138
31	4.065	.054
32	1.294	.297
33	.362	.584
34	2.293	.164
35	.019	1.000

검사문항에 따라서 성별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정상성에 대한 기준을 성별로 각각 분류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를 해석할 때도 성별을 고려하여 결과를 도출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검사는 각각의 검사문항에 대하여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은유능력발달을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검사문항 중에서 성별 간에 획득점수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문항의 경우는 발달의 적절성을 논하는데 있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문항별 성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피검사자를 대상으로 성별 간 은유능력발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은유능력발달의 성차분석

성별	N	M	SD	t	p
남자	164	20.81	7.55	-1.516	.131
여자	117	21.17	7.23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만 7세부터 12세 11개월의 학령기 아동에게 중요한 의사소통능력 중 하나인 은유능력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은유능력발달 검사는 연령집단별 획득점수를 중심으로 규준에 대한 정상성을 제시하였고, 검사방법 및 검사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여 검사도구의 신뢰성 또한 확보하였다. 이 검사는 동일 연령집단 아동과 발달 정도의 비교가 가능한 검사이다.

은유능력발달 검사의 검사문항은 문헌연구를 기초로 한 선행연구의 이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예비검사문항을 선정하였고, 1, 2차에 걸친 검사를 실시한 뒤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반응율과 변별력을 갖추고 성차가 없는 문항들만을 최종검사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최종검사문항들은 문항의 난이도 모수에 따라 재배열하였다. 또한 이들 검사문항들은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타당성이 입증된 문항들이다.

은유능력발달 검사는 그림자료를 사용한 검사로써 검사자가 세 개의 그림이 있는 하나의 그림판을 제시하면 피검사자가 지시문을 듣고 세 개의 그림 중에서 해당하는 그림을 지적하는 검사이다. 이러한 반응양식의 검사는 언어능력 검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양식이며 본 검사에서도 이를 참고로 하여 반응양식을 결정하였다(배소영 등, 2004; 장혜성, 1994; Rice & Watkins, 1996; Ruscello, 2001).

언어발달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측정하였는가와 더불어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문항에 대한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재검사 신뢰도로 이를 분석하였는데 내적일관성 계수는 .903, 재검사 신뢰도 지수는 .930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뢰도 지수가 높게 산출되었다는 것은 검사자 및 검사도구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뢰도는 검사도구를 제작할 때 필히 확보되어야 하는 요소이다(성태제, 2005). 이러한 결과로 본 은유능력발달 검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의 언어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로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되었으며 표준화를 위한 기초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검사는 향후 임상 및 교육현장에서 내담자의 은유능력 측정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 내 의사소통에서 비유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검사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은유능력발달 검사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리라 사료된다. 이 검사는 최종검사문항을 선정한 다음에 이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검사문항에 대한 신뢰도 또한 확보하였다.

은유능력발달 검사는 일반아동의 은유능력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발달이 지연되어 있는 아동의 판별 및 평가, 그리고 치료교육 목표

설정과 더불어 또래 일반아동과의 상대적 발달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간접적 표현인 은유능력의 발달이 일반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연되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검사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중재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검사도구의 개발은 아동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유능력발달 정도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목표를 설정하여 치료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중요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은유능력은 생활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표준화 검사에서는 이들 간의 상관성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검사도구의 경우 각 연령집단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726(p < .001)$ 으로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검사가 실제 연령별로 획득 원점수에 차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사결과를 통한 발달정도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검사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 α 는 $.903$, 상관계수는 $.93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사도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본 검사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령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로 은유능력발달에 대한 정상성 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고,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발달 정도를 판정할 수 있었다.

넷째, 검사문항별로 성별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각 문항별로 획득점수에 성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검사문항이 난이도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었는지를 정반응율에 기초하여 살펴보았으며 각 검사문항의 난이도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이 검사는 학령기 아동의 은유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평가 도구라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일반아동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문제를 나타내는 아동의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령집단별 아동의 은유능력발달 정도를 알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발달이 지체되어 있는 영역에 대한 재활 및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감각장애를 가지는 청각장애, 시각장애를 비롯하여 언어적 자극이 부족한 외국인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지체 및 장애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평가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아동의 언어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여러 검사도구가 개발되어 있다(김영태 외 2005, 2008, 2009; 배소영 외 2004; 장혜성 외 1992 등). 그러나 은유능력발달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도구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은유능력발달 검사의 개발은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

된 은유능력발달 검사는 동일연령집단과 은유능력발달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정상성에 대한 기준이 제공되어 있어서 아동의 언어발달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다른 언어발달 검사도구의 사용과 함께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은유능력발달 검사는 만 7세부터 12세 11개월의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를 실시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281명의 아동에게 검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표집의 수도 더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미영 (1988). 은유와 환유의 상보적 관계.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명미 (2002). 은유 이해력의 발달 경향 분석.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태, 홍경훈, 장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영태, 성태제, 이윤경 (2008).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영태, 김경희, 윤혜련, 김화수 (2005).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SELSI)**.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윤현 (2000). 은유표현의 특성이 이해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비교이론과 범주포함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보경 (1997). 은유의 의미 구조 고찰.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박영순 (2000). **한국어 은유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영준, 최경봉 편저 (1996). **관용어 사전**. 서울: 태학사.
- 배소영, 임성숙, 이지희, 장혜성 (2004). **구문의미이해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성태제 (2005).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학지사.
- 성태제 (2007).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송경숙 (2000). George Lakoff: **은유·환유·범주화**. 이기동 편,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83-126.
- 신동일 (2002). 국어 은유의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이기동 (1997). 관용어, 은유 그리고 환유 1. **담화와 인지**, 4(1), 담화·인지 언어학회, 61-87.
- 이은경, 이종열, 석동일 (2008). 청각장애 아동과 건청 아동의 은유 이해능력 비교 연구. **언어치료연구**, 17(3), 79-93.
- 이은경, 석동일 (2009). 언어발달지체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은유능력 비교. **언어치료연구**, 18(4), 27-39.

- 이인섭 (1991). **아동들의 생활은유**. 서울: 한국어학 신연구, 한신문화사.
- 임지룡 (2006).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0, 29-60.
- 임지룡 (2002). 기본 감정 표현의 은유화 양상 연구. **한국어학**, 17, 한국어학회, 135-162.
-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1992). **언어이해 인지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정인남 (2004). 신체관용표현의 개념적 은유 양상.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혜승 (2002). 초등학생의 간접적 표현의 이해에 관한 연구, 은유와 속담을 중심으로. **국어 국문학**, 132, 89-119.
- Apresjan, J., & Apresjan, V. J. (2000). *Metaphor in the Semantic Representation of Emotions*. in Apresjan, J. (translated by Kevin Windle). *Systematic Lexic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203-214.
- Barcelona, A. (2000). *Introduction: The cognitive theory of metaphor and metonymy*. In Barcelona, A. (ed.), *Metaphor and Metonymy at the Crossroads: A Cognitive Perspective*.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1-28.
- Bialecka-Pikul, M. (2003). Metaphors in preschool child thinking about the mind. *Psychology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7(2), 37-47.
- Billow, R. (1981). A cognitive Developmental Study of Metaphor Comprehen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415-423.
- Broderick, V. (1991). Young children's comprehension of similarities underlying metaphor.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20(2), 65-81.
- Cometa, M. S., & Eson, M. E. (1978). Logical operations and metaphor interpretation: A Piagetian model. *Child Development*, 49, 649-659.
- Dirven, R., & Porings, R. (eds.) (2002). *Metaphor and Metonymy in Comparison and Contrast*.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Evans, M. A., & Camblem, D. L. (1988). Attribute saliency and metaphor interpretation in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Child Language*, 15, 435-449.
- Fass, D. (1997). *Processing Metonymy and Metaphor, Greenwich, Connecticut*. London, England: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Galda, S. L. (1981). *The development of the comprehension of metapho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Gardner, H., & Winner, E. (1978). The Development of Metaphoric Competence: Implications for Humanities Disciplines. *Critical Inquiry*, 1, 123-141.
- Gibbs, R. W. (1994).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나익주 (2003). 마음의 시학: 비유적 사고 · 언어 · 이해. 한국문화사.).
- Gibbs, R. W., & Steen, G. (eds.) (1999). *Metaphor in Cognitive Linguistic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alverson, S. (1999). Image screams, metaphoric processes, and the translate: concept.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14(3), 199-219.

- Johnson, J., & Pascual-Leone, J. (1989). Development levels of processing in metaphor interpret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48, 1-31.
- Kövecses, Z. (1991). Happiness: A definitional effort.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6(1), 29-46.
- Kövecses, Z. (1995). *Metaphor and folk understanding of anger*. in Russell, J. A. et al., (eds.), *Everyday Conceptions of Emotion: An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Anthropology and Linguistics of Emotion*,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49-71.
- Kövecses, Z. (1999). *Metaphor: Does it constitute or reflect cultural models*. in Gibbs, Jr., R. W & G. J. Steen(eds.), *Metaphor in Cognitive Linguistic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67-188.
- Kövecses, Z. (2000). *Metaphor and Emotion: Language, Culture, and Body in Human Feel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övecses, Z. (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이정화, 우수정, 손수진, 이진희 공역 (2003). 은유: 실용입문서. 한국문화사.).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노양진, 나익주 옮김 (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 Lakoff, G. (1993).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in Ortony, A. (ed.), *Metaphor and Thought*, 202-25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rtony, A., Reynolds, R. E., & Arter, J. A. (1978). Metaphor: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5, 919-943.
- Ortony, A. (ed.) (1979).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arson, B. (1990). The Comprehension of metaphor by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Language*, 17, 185-203.
- Reddy (1979). *The Conduit Metaphor*, In Ortony, A.(ed.) *Metaphor and Thought*, 284-32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e, M. L., & Watkins, R. V. (1996). "Show me X": New views of an old assessment technique, In Dale, K. N., & Thal, D. J.(eds.), *Assessment of communication and language*, (pp. 183-206). Baltimore, MD: Paul H. Brookes.
- Ruscello, D. M. (2001). *Tests and measurements in speech-language pathology*. Boston, MA: Butterworth-Heinemann.
- Vosniadou, S., Ortony, A., Reynolds, R. E., & Wilson, P. R. (1984). Sources of Difficult in the young Child's Understanding of Metaphoric Language. *Child Development*, 55, 1588-1606.
- Vosniadou, S., & Ortony, A. (1986). Testing the metaphoric competence of the young child: Paraphrase vs. enactment. *Human Development*, 29, 226-230.
- Winner, E., Rosenstiel, A. K., & Gardner, H. (1976). The Development of Metaphoric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2, 289-297.

Development of Metaphoric Ability Test Protocol for Communication Disorder Children

Lee, Eun Kyoung

Dept. of Speech Pathology, Dongshin University

Lee, Jong Yeol

Daegu Institute of Science Education(Support Center For Gifted Education)

Park, Sang Hee

Dept. of Speech & Language Pathology, DaeguCyber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dminister the Metaphoric Ability Test and to examine the reliability of the test. The Metaphoric Ability Test was administrated to 281 normal children aged from 7;0 to 12;11, divided into 6 age groups.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and test-retest reliability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Metaphoric Ability provided normative data to assess from school age children.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test and the retest scores in both the metaphoric ability tests. Different age groups demonstrated different total scores with the tread of increased both score by aging.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t total scores observed by gend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taphoric ability test was a reliable instrument to assess metaphoric ability from school age children. For this reason, it could be useful in both clinical and educational fields.

Key Words : Metaphoric, Metaphoric ability, Metaphoric test, School age, Standard test, Reliability

논문 접수: 2013. 02. 05 심사 시작: 2013. 02. 14 게재 확정: 2013. 03. 25